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은 행장, 정인호 노조위원장)은 4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전통시장을 찾아 2024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북은행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폭염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백종일 은행장과 정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전주 남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익산 북부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식자재와 생필품,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전북은행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군산시 무료 급식소인 군산 경로식당, 익산시 다리로움 나눔공간 등에 전달했으며, 추석을 맞아해 영세상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일석이조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120민원봉사대, 추석 대비 현장 사전 점검

남원시는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가 추석 귀성객들의 안전과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 투어는 자전거를 타고 직접 주요 공공시설물, 관광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터미널 등을 점검하고, 불법 게시물, 쓰레기 적치물, 통행 불편사항, 도로 위험요인 등 시민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폈으며,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20민원봉사대에서 즉시 처리하고, 정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은 관련 부서에 알려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120민원봉사대는 8월 말까지 생생현장투어를 통해 도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7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 로타리클럽, 무연고 분묘 별초 봉사

남원시 운봉읍은 지난 2일, 로타리클럽 회원 45명이 운봉읍의 공동묘지를 찾아 관리가 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의 별초 봉사 활동을 펼쳤다 4일 밝혔다.

운봉읍 로타리클럽은 해마다 가족이나 친지 등 후손이 없어 돌보지 못하는 무연고 분묘(500여기)에 잡초와 넝쿨 제거 등으로 진입로를 정비하고 별초하고 있다.

최태운 클럽 회장은 "별초 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운봉읍장은 매년 무연고 묘지 별초에 나서고 있는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는 지난 3일 순창군 관계자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등 '25년도 치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범죄예방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내년도 치안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순창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방범용 CCTV 수리 및 신규설치,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및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사업 등 치안 관련 예산을 올해 보다 1억여원 증가한 16억7,000여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2024 메가어스 엑스포' 통한 수출 계약 '성과'

전북대 지원 23개 지역 창업기업 참여... 241만 달러 규모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2024년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를 통해 전북 지역 17개 기업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이번 메가어스 엑스포에 전북대가 지원하는 23개의 지역 창업기업이 참여해 241만 달러(한화 약 32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5년부터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해 왔고, 2022년부터는 메가어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매년 많은 지역의 창업기업의 제품을 알리는 등 수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메가어스 엑스포에서 전북대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엔피씨젠, (주)미디당, (주)더웍스, (주)타이거랩, 나리전(주), 미니케이 등 12개사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주)도시농촌, 모바니스, 노아팻바이오, (주)케이제이테크, 그리고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및 희망전북 POST-포 입주기업인 (주)제이케이 나노바이오 등의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적극 알렸다. 그 결과 총 27건에 927만 달러(한화 약 123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6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6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국경수 단장은 "전국 창업중심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군산시 시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애향봉사장 이용재 · 노동장 염성곤 · 효열장 최현숙

군산시는 지역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2024년 군산시 시민의 장'에 3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5개 분야 9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이후 후보자 검증에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직 현직 확인을 마쳤다.

최종결정을 위해 열린 3일 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숙고를 거쳐 5개 분야 9명 중, 애향봉사장, 노동장, 효열장 3개 분야의 수상자만 결정됐다.

먼저 애향봉사장을 수상하는 이용재씨(유)한양산업개발 대표이사, 71)는 평소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봉사 및 기부활동 등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염성곤(세이베스텔 노동조합 위원장, 53)씨는 노사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임금 격차 해소 및 안전 체험관 건립 등 노사교섭을 통해 노사분규 조정 등의 공로로 노동장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민 연사의 추천을 받아 효열장을 수상하는 최현숙(중양소방장, 63)씨는 40여 년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홀 시어머님을 극진히 모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군산시민의 장은 1968년부터 시상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총 288명(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오는 9월 27일 제62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김홍훈 장수서장 일일 명예교육장 위촉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2일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을 일일 명예 교육장으로 위촉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및 교육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일 명예 교육장 운영은 장수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일일 명예교육장이 된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위촉 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교통안전 교육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이번 명예 교육장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김홍훈 경찰서장님이 명예 교육장으로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추석 명절 주요 안전수칙 강조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주요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사용 후에 전원 확인 △취침 전 가스밸브 잠금 △전기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손상된 전선은 즉시 교체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촛불과 향초는 사용 후 반드시 끄기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경로 확인 및 비상구나 계단에는 물건을 두지 않기 등이 있다.

김승현 서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남원소방서도 연휴 기간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민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군산대, 개강 맞아 학생에 특별 환영인사

국립군산대학교가 개강을 맞아 학생들에게 특별한 환영인사를 전했다.

2일 아침 이장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단과대 학장 등 교직원들은 황룡도서관 앞 광장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웰컴팩 800개를 전달하며 따뜻한 개강 인사를 건넸다.

이날 등교한 학생들은 첫 등굣길을 환영하는 웰컴팩을 전달받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어 조금 긴장했었는데, 웰컴팩을 받게 돼 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보직자 및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캠퍼스가 활기로 가득 찬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오연풍 학생처장은 "우리 학교에는 웰컴팩 행사처럼 학생사랑에서 비롯된 행사들이 많이 있다. '학생에(愛) 진심이다'를 기치로 학생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위한 다리로움 밥차 재운영

익산시가 다리로움 밥차의 재장비를 마치고 4일 북부권 취약계층을 위한 합열 아사달 공인 이동 밥차로 재운영을 시작했다.

다리로움 밥차는 휴식기 8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익산 곳곳을 누비며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식사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주는 익산 동서남북 4권역을 정해 돌며 이동 밥차로 진행하고, 셋째 주는 중앙동에 위치한 행복 나눔 마켓에서 밥차를 운영한다. 둘째 주와 넷째 주는 배산체육공원에서 문화가 함께하는 밥차로 흥겨운 공연과 함께 300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다리로움 밥차는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삼화선원, 추석 맞아 백미 등 물품 기부

남원시 산내면은 관내 삼화 선원(주지 여강 스님)에서 지난 8월 29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kg, 백미 10kg, 300, 라면 20박스(현금150만원 상당)를 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삼화 선원은 올해로 10년째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이웃들을 살피는 나눔 기부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여강 스님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물품은 면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총 50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여쭙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산면 신세계병원, 추석명절 화장지 세트 기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4일 화장지 세트 58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병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기탁해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준비했다.

김한주 신세계병원장은 "금산면의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금산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숙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지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55	진안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8645-9835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